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노건기 과장(044-203-5240), 임기홍 사무관(044-203-5254)

산업부, 「지진상황대책본부」를 통해 지진에 긴급 대응

– 에너지시설 유관기관장으로 하여금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 –

□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9. 19.(월) 지진발생 직후, 한전 여의도 남서울 본부에서 지난 9.12. 설치한「지진상황대책본부」회의를 주재하고,

○ 원전, 발전소, 송배전망, 석유비축시설, 도시가스관 및 인수기지 등 에너지 관련 시설과 산업단지 등에 대해 지진에 따른 상황과 영향을 점검하고,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였음

○ 한전, 한수원, 발전회사 등 에너지 관련기관과 산업단지공단 기관장(상황책임자)으로 하여금 본사 상황실에 정위치하여 직접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차질없이 취하도록 지시하였음

○ 또한, 한전사장, 한수원 사장,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, 산업단지 이사장 등과 직접 통화하여 상황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

□ 현재까지는 원전 및 발전소, 방폐장, 가스관, 송유관, 송배전망 등 주요 에너지 관련시설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

○ 울산 석유화학단지도 산업단지공단, 합동방재센터를 통한 점검 결과, 현재까지 입주업체의 피해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

□ 산업부는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난 9.12 설치한 에너지, 산업 비상점검반을 통해 에너지 관련기관과 계속 상황을 긴밀히 점검·공유하면서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임기홍 사무관(☎ 044-203-52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